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문제지 맨 뒷장의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 당신이 몇십 년 전에 나의 지역 주민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면, 그는 ‘㉠ **공장 감독이랍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제조업 관련 직종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어요. 내가 만약 요즘 그들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나는 ㉡ **백인입니다.** 그리고 ㉢ **이민자를 싫어해요.**’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대서양 양쪽에서 볼 수 있는 변화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지만, 이 변화의 문화적 의미가 얼마나 클지는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임금에, 노동조합이 갖춰져 있던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중산층에서 발을 뗀 것뿐만 아니라 삶을 구성하고 의미를 주었던 총체적·사회적 연결고리를 잃은 것이다. 성취적 정체성이 빠져나가면 귀속적 정체성으로 침잠해 버린다. 인종, 종교, 국적이 세계관의 핵심이 된다. 성취적 정체성을 이미 가졌거나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귀속적 정체성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것은 문화적·인종적 간극을 극복하고 직업적 지위나 개인적 지위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자신의 직업에서 더 이상 성취적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종종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에 대해서 울분을 갖는다. 이들은 비슷한 경제적 위치에 있으나 인종이나 종교가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분함을 느낀다.

(나) 지식경제의 부상, 기술 자동화, 제조업의 붕괴, 상품과 인구의 글로벌 흐름(특히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 노동 조직의 약화, 복지 안전망 축소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서구사회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 장기 실업자, 축소된 사회적 혜택에 의존하는 가구, 이민자가 집중된 도시 내 빈곤한 백인 인구 등 사회에서 덜 안전한 계층을 반체제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외국인 혐오적 선동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들은 경제적 실패가 자신과 자녀들이 열망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훼손했으며,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기대를 훼손했다는 것에 분노한다. 그 사이 포퓰리즘 운동과 정당 및 정치인들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번영, 일자리 기회, 공공 서비스를 빼앗아 갔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다.

(다) 1964년 역사가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지위 불안(status anxiety)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집단의 지위, 정체성, 소속감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될 때 미국 정치의 편집증적 성향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과열되고 상대를 지나치게 의심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극단적이고 종말론적인 정치 접근방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뒷면에 계속)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러 그의 주장은 지금의 미국 사회에 더욱 적절한 말로 들린다.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쟁 관계를 넘어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또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은 인종, 종교, 지역은 물론 심지어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정당 지지자 집단의 사회적,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 크게 바뀌면서 정당은 이제 단지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 문화와 가치를 대변하는 집단이 되었다. …(중략)…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말은 단지 정치 성향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 2016년 퓨재단(Pew Foundation)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49퍼센트,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의 55퍼센트가 상대 당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그 비중은 더 커서 민주당의 70퍼센트, 그리고 공화당의 62퍼센트가 상대 정당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라) 복수의 정당 사이에서 논쟁과 조정, 타협을 거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 입법과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은 걸려도, 사회를 더 잘 통합하고 공익 증진에 더 잘 기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민주주의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시민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정치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를 연대(solidarity)의 가치라고 부른다. 그 핵심은 ‘우리’라는 호명이 얼마나 많은 시민 구성원을 포괄하고 있느냐에 있다. 다른 당과 그 지지자는 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선호로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없는 민주주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증오하는 민주주의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옳고 정의로운 의지가 있다고 믿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보다는 복수의 정견들 사이에서 잠정적 합의를 반복해 가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이 길이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가야 할 정치의 미래다. 달라도 안전할 수 있고, 느려도 길을 잃지 않으며, 침착하고 다정해도 뒤쳐진 느낌을 갖게 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 시민 자격이란 정체성을 소유할 권리, 즉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와 가치관 및 염원을 공유해 왔는지를 안다는 인식을 소유할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지구화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다문화주의와 복합적 정체성에서도 망칠 수는 없다. 국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감안해야 한다. 스스로 규제하는 몇몇 정체성 내에서 권리를 지니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권리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구든 일종의 거류민이다. 각각의 정체성으로 인해 독특한 여러 권리가 생긴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종교 지지자나 무신론자의 정체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지니지 않는 권리(특정한 휴일에 대한 권리, 기도를 올릴 권리나 기도를 올리지 않을 권리 등)가 공동체 안에서 생긴다. 어떤 사람이 배관공이거나 간호사라면, 그 사람에게는 동료들에게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말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 직업의 모든 성원에게 용인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1-1.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 공장 감독이랍니다, ㉡ 백인입니다, ㉢ 이민자를 싫어해요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 (250±20자) [15점]

1-2. 제시문 (다)의 논지를 정리하고, 제시문 (라)와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250±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해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원본과는 관련이 없는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는 이미지 합성·조작 기술이다. 특히 오늘날 딥페이크의 유통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 **사실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딥페이크의 활용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정치인의 얼굴을 뒤바꿈으로써 가짜 정보의 유포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정치와 정쟁은 늘 정보를 둘러싼 싸움이었지만, ㉡ **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포**는 그간의 정보 조작과는 양상이 다르다. 딥페이크는 전달되는 말의 내용 자체를 조작하기보다는 인물의 얼굴을 바꾸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화자’의 속성을 조작함으로써 사실성의 효과를 자아낸다. 특히 메시지의 내용과 조작된 화자의 속성이 일치하는 경우, 혹은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큰 혼란이 발생한다. 가령, 누군가가 악의로 특정 기업의 CEO가 기업 매각 의사를 발표하는 영상이나 어떤 국가의 수장이 전쟁을 선포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화자가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짜 영상이나 허위 정보를 진짜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내가 말했네. “다음으로는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성향을 다음과 같은 처지에 비유해 보세. 이를테면 지하의 한 동굴 입구에 햇빛이 있고, 동굴 깊숙한 곳에 어릴 때부터 손발과 목이 묶인 채로 지내 온 죄수들이 있다고 하세. 그런데 이들은 묶여 있기 때문에 머리를 돌릴 수가 없어서 안쪽의 동굴 벽만을 쳐다볼 수 있는데, 그들 뒤쪽의 동굴 입구에는 햇빛이 타오르고 있네. 그리고 이 불빛과 죄수들 사이에는 하나의 담이 세워져 있어.” …(중략)… “죄수들은 반사된 불빛을 통해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들을 쳐다보게 되지.” …(중략)… “만약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 **자신들이 벽면에서 보는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며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네.**” …(중략)…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풀려나 일어서서 목을 돌리고 걸어가 그 햇빛을 쳐다볼 경우에 그는 고통을 느낄 테고 눈이 부셔서 이제껏 보아온 그림자들의 실물을 볼 수도 없을 것이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 사람에게 전에 본 것은 엉터리였고 이제야 실재를 가까이서 바르게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앞서 그림자를 통해서 본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보다 더 진짜 같다고 말하지 않을까?” …(중략)… “그런데 누군가 그를 데리고 험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 햇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낸다면, 그는 갑자기 햇빛을 보게 되어 눈이 부셔서 방금 진짜라고 들려준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네.” …(중략)… “그러므로 그가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보려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걸세. 처음에는 그림자를 가장 쉽게 볼 것이고, 다음으로는 물에 비친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의 영상을 보다가 비로소 실물 자체를 보게 될 것이네.”

(다) 사람들은 흔히 알고리즘을 인간의 기호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중립적인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AI(인공지능) 판사나 AI 의료진단기가 인간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성형 AI의 알고리즘은 인간 사회의 거울이다. 생성형 AI의 최종 출력과 판단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반인,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인간이 개입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의 수많은 데이터가 모두 완전하고 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온라인상에는 정제되지 않은 편향되고 신뢰할 수 없고 불법적인 온갖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그대로 AI에 학습된다면, 학습 후 생성형 AI가 판단이나 예측을 내릴 때 언제나 올바른 결과를 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해당 주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스템의 답변이 근거가 없거나 편향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태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그러한 정보에 더욱 주목하며 더 쉽게 믿는 경향, 즉 확증편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경향에 따라 자신의 관점에 일치하는 정보만(그것이 가짜 정보라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찾고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짜 정보를 무심코 친구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이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가짜 정보의

(뒷면에 계속)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 시스템은 편향을 식별하고 편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제시한다.

(라) 인간 자유의 본래 영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의식이라는 내면적 영역이다. 그것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실천적, 사변적, 과학적, 도덕적, 신학적인 모든 주제에 관한 자신만의 의견과 정서를 가질 절대적 자유를 요구한다.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한 개인의 행위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상의 자유 그 자체와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하고 대부분 같은 이유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사상의 자유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 둘째는 ㉞ **취향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맞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그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행위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를 자신이 감수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

(마) 계몽이란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중략)… 이런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해가 없는 자유, 즉 모든 국면에서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의 공적인 사용만이 인류에게 계몽을 가져올 수 있다. …(중략)… 내가 말하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맡겨진 공직에서 정부의 명령대로 수동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정부 제도에 결점이 있다면 이를 비판하고 그 부당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바)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한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책임으로, 이미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 즉 이미 지나간 행위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귀속으로서의 책임이다. 이에 따르면 비록 출발은 악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결과가 예견된 것도 아니고 의도된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행위자는 저지른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 이는 내 자신이 능동적 원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하나는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 부과와 관련되지 않고 행위되어야 할 것의 결정과 관련된 전혀 다른 책임이다. 이는 과거 지향적 책임과는 달리 앞으로 내가 행해야 할 사태와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바로 미래의 행위를 전망하는 의무로서의 책임, 미래적 사태에 대한 책임이다. 이에 따르면, 나는 나의 행동과 그 결과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요나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책임과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 제시문 (나)의 밑줄 친 ㉞에 나타난 죄수들의 모습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문 (가)와 (다)에서 찾아 쓰고, 제시문 (가)의 ㉟ **딥페이크 결과물의 유포에 대해** 제시문 (라)의 ㉞ **취향의 자유와 목적 추구의 자유**의 관점에서 비판 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㉟ **사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 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오그노즈야**(폴란드어 ognozja)는 내러티브 지향적인 인지 과정으로 대상과 상태, 현상을 반영하며, 그것들을 더 고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의미로 배열하려는 시도이다. 내러티브 자체는 물론이고 그 일부나 세부 항목에서도 질서를 발견하여 종합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을 말한다. 오그노즈야는 인과관계를 넘어선 영역 또는 사건의 비논리적 연결고리에 집중한다. 오그노즈야가 손상될 경우 세계를 통합된 전체로 인식할 수 없다. 즉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경우 상황에 대한 통찰력,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들을 종합하고 연관시키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

(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담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후 온난화에 따른 수권(水圈)의 재편성으로 비가 내리는 계절적 시기와 강도, 지속 시간이 모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문제는 전 세계 수력문명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온화한 기후에 맞춰진 수문 순환에 묶여 있으며, 그 결과 인간이 소비하고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농경지에 관개하기 위한 물을 필요한 때와 장소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이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은 물을 우리 종(種)에 맞추는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 종이 물에 적응하는 식으로 수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홀로세*의 온화한 기후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물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고 고도로 효율적인 수력학적 접근방식에서 인류세**의 ㉡ **재야생화(再野生化) 수권**에 적응하기 위한 훨씬 더 적응적인 접근방식(예: 슬로워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수권에 적응하기 위한 이 새로운 접근방식은 지구 수권의 흐름을 지휘하는 대신 흐름에 따라가는 것으로, 즉 수권에 대한 관리에서 책임으로 균형을 전환하는 것이다.

*홀로세(Holocene):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

**인류세(Anthropocene): 인류가 지질학적 흔적을 남길 정도로 자연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시대

***슬로워터(slow water): 자연 상태의 물이 항상 지표면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습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수 동굴에 자리 잡는 등 느린 단계를 거치며 많은 생명체에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다) 역사 전체를 살펴볼 때 ㉢ **권리가 없던 존재에게로 권리를 확장하는 작업**은 언제나 처음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 노예 해방론자들은 노예를 소유물에서 권리자로 바꾸기 위해 싸웠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을 소유물에서 권리자로 바꾸기 위해 투쟁했다. 오늘날 원주민, 과학자, 활동가들은 동물과 자연을 소유물에서 권리자로 바꾸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대형 유인원, 고래목, 코끼리에게 자유를 누리며 야생의 서식지에서 살아갈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동물 연구와 관계된 규정들은 극심한 물리적 고통이나 잔혹하고 비상한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반영하여 크게 강화되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를 가진 법인격체임을 인정했다. 침팬지 세실리아는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덕분에 동물원에서 풀려난 세계 최초의 비인간 동물이 되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종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구에서 어느 한 종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다.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는 헌법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빌카밤바 강에 본래의 상태를 되찾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뉴질랜드에서 팡아누이 강과 테 우레웨라 국립공원은 법인격체로서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 더는 인간의 재산이 아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는 공통된 논리가 있다.

(라) 최근 들어 제노사이드(집단살해) 개념을 대규모 인간 고통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생물학적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나치식 절멸정책, 집단학살, 홀로코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어떤 집단의 통합적 일체성이 해체되는 문화·환경 조건의 파괴, 즉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21년 전세계 제노사이드 연구자들이

(뒷면에 계속)

‘기후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㉞ 에코사이드*(생태살해)와 제노사이드가 얽히면서 인간과 지구 행성에 가하는 복합적 폭력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남반구 난민, 유색인종, 도시 빈민, 소농, 유목민, 전쟁 이재민, 토착민 등 기후-생태 재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공동체들’을 위한 각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에코사이드(ecocide): 전쟁 시 군사작전의 고의적 환경파괴를 고발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오늘날에는 평상시 경제활동에 의한 대규모 환경파괴까지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됨

(마)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 집중돼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 또한 불평등하게 배분돼 있다는 ㉟ 기후불의(climate injustice)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정의를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 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 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12항).”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피해에 먼저 노출된다. 인종과 계급, 젠더, 연령, 장애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가장 고통이 클 것이며, 주권과 지리에 따라 피해는 차별화된다. 세계인권선언 이래 전통적으로 인권은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으로 분류되어 왔고, 이는 개인의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 나아가 3세대 인권은 집단의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권리로 환경권, 문화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3세대 연대권은 특히 인류세에 들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연자원의 수탈, 지역공동체와 전통문화의 붕괴, 비서구 개도국의 환경파괴, 선진국에서 저개발국으로 공해유발 산업의 외주화 등이 일어났다. 그 결과 환경과 문화의 발전이 인권에서 피난처를 찾게 된 것이 바로 3세대 연대권이다.

(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사회적 지위와 권리, 재화와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여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것들을 분배하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의의 또 다른 측면인 교정적 정의는 어떤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며, 이는 주로 법 집행에 의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실현된다. 이러한 법에 따른 처벌을 정당화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응보주의적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보고, 공리주의적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3-1. 제시문 (가)의 ㉟ 오그노즈야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 재야생화 수권과 (다)의 ㉡ 권리가 없던 존재에게로 권리를 확장하는 작업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300자±20자) [20점]

3-2. 제시문 (라)의 ㉢ 에코사이드와 (마)의 ㉟ 기후불의가 초래한 문제를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찾아 쓰고,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어를 활용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30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논술고사 연습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이 연습지는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문제지 및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